제품디자인과 종교적 사상의 근접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적 창조사상을 중심으로-

A Study of Approach to the Religious Faith in Industrial Design

- Especially on the Creative Idea of Christianity -

박 규 현(Kyu-hyeun, Park)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研究論文 Original Articles ● Received : Jan. 11. 1999 ; Accepted : Jun. 8. 1999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2. 논리의 접근

2. 창조사상
2-1. 창조의 발견
2-2. 창조의 질서
2-3 .창조의 정치경제학

3. 창조와 진리(眞理)
3-1. 창조의 정신
3-2. 섭리성

4. 창조의 구체적 예시(例示)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Walter Gropius, famous architect of Bauhaus, once treated of pure mind which was revealed in the system of object and its phenomena through sense of sight while examining material being and illusive being. And Thomas Aquinas said that man can have a creative power only with modest mental state void of prejudice saying that he expected God to come to him after his soul went out of him. The same thing was said by so many great philosophers and thinkers other than him. I think his saying, "God comes after Soul's escape from the body for a new creation", has a real truth for all times and places and beauty itself beyond expression. Why? The reason why the saying is so true is because it has a Yin and Yang Idea, that is, the Soul means a dark spirit correspondent to Yin between both oriental ideas and God does a bright spirit correspondent to Yang between them. By reason of this idea, I would like to assert that we should take it granted that we stand in need of the same bright Yang's spirit as God has for the new creation, and let the Yang's bright spirit come to our minds. We can call it divine 'Providence', or call it God's guidance, which we cannot help accepting as a man's fatality. As God was pleased after he made man and all the creatures by dint of his design, so man was pleased after he made everything he needed by the same design that he accepted from God. In spite of pleasure of different dimensions from what God and Man has each other, their way of empathies were all the same.

In this paper I compared a worldly lower conception by which man designed his products for his sensuous satisfaction with a higher conception by which God designed his creatures for his mental satisfaction. I intended to infer what destined relation there must be between both God's and man's creations, trying to remind designers that they have to confess to have not so divine a providence as God has for creation because I think the real truth is that they had regarded their works of product design as a routine occurrence for their physical convenience in the industrial plans.

key words :
creation
providence
orderlines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선 연구자로서 제품디자인에 있어 '종교적 특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제품디자인을 아직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 연구한 예는 없었고 - 연구자가 관찰한 바로는 -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서로 종교적 견해를 달리함에 따른 많은 논쟁을 낳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위의 논제를 가지고 연구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 모든 과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추구에 목적이 있다면 산업디자인학도 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방편이 되는 종교(宗敎)와 신학(神學)도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 둘째,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만이 사는 세상은 아니며, 유신론자들에 의해서도 제품은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교환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종교와 신학에 바탕한 디자인의 논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며,

· 셋째, 비록 종교적 견해를 달리함으로 인한 수긍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견해가 다름으로 파생되는 문제이지, 본 논제가 그 자체의 논리성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배타되어 져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 모든 것은 학문추구의 기본 상식의 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가급적 신학의 객관적 사실 -신학자체가 신념을 달리하는 관찰자에 따라 객관화하기에 어려운 성질의 것이지만- 의 서술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또 부제에서 밝혔듯이 '창조사상을 중심으로' 만 연구함으로서 가급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종교가 현대에 이르러 이미 논제의 핵심으로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새삼스럽게 종교를 들고 나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사회의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므로" [1] 인간이 기술문명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바른 가치체계의 형성을 위하여 제품디자인에 종교적,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진실한 행복추구가 물적 가치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가치체계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제품디자인이란 근본적으로 제품이 가진 외적(外的) 하드웨어(hardware)를 통하여 인간의 내적(內的) 소프트웨어(software)의 만족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의 유무와 종파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논제는 한 번쯤 연구를 시도해볼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2. 논리의 접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디자인에 대한 종교적, 신학적 논리의 접근은 그 연구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논제 <제품디자인의 기독교적 사상의 접근 연구>는 다른 논문이 그러하듯이 연구의 폭을 좁혀 둠으로서 제한된 분야를 좀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보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가급적 여타의 종교적, 신학적 견해에 대한 마찰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 부제를 <창조사상을 중심으로> 함으로서 가급적 창의성(創意性)을 요구하는 제품디자인과의 관계에 접근의 폭을 가깝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순수한 '학문적 견해의 차이'에 의한 논란은 수용되나 '종교적 신념과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배타적 비판은 마땅히 수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이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을 부여한다.

· 첫째, 본 연구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 휘말려서는 아니 되고 부제에서 제시하였듯이 곧바로 「창조론」에 근거함을 조건으로 한다.

·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 사상 가운데서도 오직 창조사상에만 근거하는 논리임을 조건으로 한다.

· 셋째, 본 연구는 논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창세기의 원전이 전하는 내용의 순서에 따른다. 창세기의 제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의 내용은 절대자의 창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물건들이 갖고있는 디자인의 요소들과 디자인 재료, 디자인 방법, 디자인 목적, 디자인 가치 등을 극명하게 환치시켜 보여주는 한 예로서 제품디자인의 방법, 목적, 가치 등과 밀접히 관련짓고 있기 때문이다.

2. 창조사상

2-1. 창조의 발견

"신은 창조성이고 창조 그 자체이다. 창조성이 바로 그의 존재이다." [2] 그래서 항상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디자인은 창조의 결과물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독교적 사상에서 볼 때 구약의 창세기(創世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창조에 관한 한 기독교사상인 창세기나 디자인의 조건인 독창성(獨創性)이나 다 같은 창조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즉 창조를 매개로 창조주<神>와 창조자<디자이너>와의 사이에는 하나의 필연적 공통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한 만물의 창조주가 그의 재료인 땅과 물과 불<빛>과 공기를 가지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만들었듯이 물건의 창조자 또한 땅, 물, 불, 공기를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땅, 물, 불, 공기에 대한 사원설(四元說)은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3] 석가모니인 고타마 붓다(Buddha)나 희랍시대의 물활론(物活論/Hylozoism)자인 엠페도클레스(Empedocles)도 그후 같거나

1) 박영학,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박영률출판사, 1998, P.54.

2) Osho Rajneesh, 나를 따르라, 류시하 역, 청하, 1987, P.24-25.

3)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첫머리에 최초의 우주의 창조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땅(Earth)과 물<Ocean>과 불<Light>과 공기<Wind>의 결합과 분리로서 시작됨. /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 earth<땅> was formless and desolate, A wind<바람,공기> from God was moving over the water<물>. Then God commanded, "Let there be light<불>."

비슷한 설을 주장하였음을 보면 이 네 원소는 창조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 질료(質料)로 작용하고 있다. [4] 그리고 이러한 사원설(四元設)에 기인한 원칙에 따라 인간은 그를 창조한 창조주의 섭리(攝理/Providence)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조와 관련된 이 네 원소를 한낱 원시적 견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제품디자인과 관련시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발전된 현대적 추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 땅<地> - 지하자원, 광물질, 재료(材料).
- 물<水> - 수자원. 발전설비(發電設備).
- 불<火> - 열역학(熱力學). 재료의 용해 및 성형(成形).
- 공기<空氣>-응고(凝固), 산화(酸化) 및 화학작용(化學作用).

위의 이러한 생각은 또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의 <하느님은 물리세계 속에서 활동하는가?>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하느님은 세계의 물리과정(物理過程)과 상호작용하지 않고서는 영혼(靈魂)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체현(體現)된 존재들(embodied beings)이기 때문에 인간본성에 대한 심신상관적(psychosomatic)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5] 고 이유를 말하였다. 과연 이 말은 그대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곧 말씀은 정신(spirit)에서 나왔고 정신은 곧 영혼에 의존하는 바 절대자가 가진 그 영혼의 힘이 작용하여 땅, 물, 불, 공기의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로 다시 위와 같은 '제품, 수자원, 산업생산, 열역학, 재료의 용해와 성형, 산화 및 화학작용'이 생겨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앞의 주(註)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타마 붓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음을 인정한다고 보면 종파에 관계없는 '종교적 진실'임과 함께 또한 '물리적 진실'임도 틀림없다. 이것은 곧 폴킹혼(Polkinghorne)의 생각처럼 과학과 신학은 평등하며 그래서 과학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는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만물은 -디자인된 제품을 포함해서- 성서의 '말씀'이나 붓다의 '사대오온(四大五蘊)' 사상에서와 같이 땅, 물, 불, 공기의 요소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것이 비록 오늘과 같은 원자시대가 아니고 초기 자연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시적 분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교적 진실인 신학(神學)과 물리적 진실인 과학(科學)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사상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2-2. 창조의 질서

과학과 신학은 평등하며 그래서 과학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는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옳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앞서있는 현대과학자들은 신학과 과학을 별개의 동떨어진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직 누구도「진화론(進化論)」이 옳으냐 「창조론(創造論)」이 옳으냐에 대해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결말지을 수 없을 논쟁으로 남을 것인지 모른다.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진화론에 비중을 두고 연구하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는 많은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化石)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수 천만년이 지났건만 화석은 아직 아무것도 진화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못함을 보여준다. 진화론이 옳다면 발견되는 박쥐나 코끼리의 화석이 시대별로 서로 다른 모양을 보여줌으로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증거는 없다. 그것은 아메바(amoeba)의 진화가 아니다. [6] 그래서 오직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창조신학은 매우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학자들만이 존 폴킹혼처럼 과학과 신학의 이분법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창조작업에서의 신의 디자인은 과학과 신학에 공통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만 절대자가 계획한 창조의 의도(意圖/design)와 방법(方法/method)에 따라 물건을 계획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조사상에 있어 신은 곧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은 곧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의 창조의도와 방법은 곧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꼭 같은 의도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 사상에 근거할 때, 그리고 앞서 사대오온(四大五蘊) 사상처럼 불교신앙에서도 근거하듯이 -기독교신앙에 찬동하는 의미에서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자가 계시한 신의 법칙인 섭리(攝理/Providence)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신학과 동등한 과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물건<제품>들을 잘 만들게 된다고 믿는다. 섭리가 "신의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인도하는 질서(秩序) "[7] 라면 그러한 질서에 의해 창조는 이루어지며 과학의 모든 법칙은 증명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절대자간의 작업을 구분해 본 것이다.

구분	인간	절대자
방법	Design<계획,의도>	Design<계획,의도>
목적	삶의 확장	영(靈)의 확장
영역	지구	우주
창조	물건<제품>	만물<물질+정신>

4) 김두재 역, 능엄경, 민족사, 1998, P.17., P.380./ 붓다(Buddha)도 땅, 물, 불, 공기<바람>을 사대(四大)라하여 오온(五蘊/色, 受, 想, 行, 識)과 더불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고, 엠페도클레스는 우주의 근원인 모든 물질<물건>은 이들 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주장하고 만물은 그것들의 사랑과 싸움에 의하여 결합과 분리가 이루어져 생멸한다고 하였음. 이는 창세기의 '말씀'이나 붓다의 생각이 유사함을 뜻한다.

5) John Polkinghorne, Belief in God in an Age of Science, 이정배 역, 과학시대의 신론, 동명사, 1998, P.63./ 존 폴킹혼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과학과 종교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있어 중요 인물로 간주된다. 그는 이론 물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신학자로서 유일한 영국왕립학회의 회원이다. 그는 과학과 신학의 평등성에 지론을 펴면서 과학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가 평행하다고 웅변한다.-

6)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와 과학, 도서출판 두란노, 1995, PP.49-52.

7)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4,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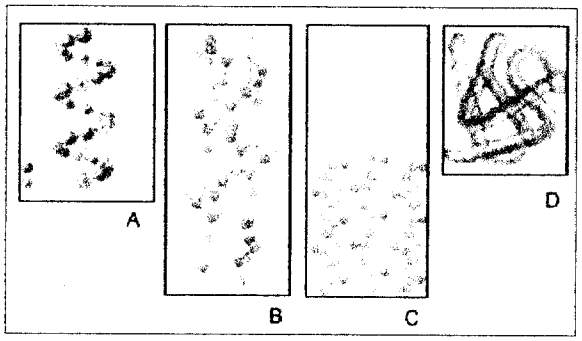
위의 구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이 디자인하는 목적(目的)과 영역(領域)과 창조내용(創造內容)이 절대자의 그것과 달라도 오직 한 가지 같은 것은 인간이나 절대자나 꼭 같은 <디자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인간의 디자인 방법이 절대자의 그것과 다를 수가 없다. 인간은 오직 절대자가 우주를 만든 원리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 절대자가 우주만물을 창조한 과정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인간이 정말로 진실되고<眞>, 착하고<善>, 아름답게<美> 물건을 만든 것이면 그것은 바로 신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의 혼신(渾身)을 다하여 정성들여 만든 옛 장인의 뛰어난 물건을 우리가 후세에 신기(神器)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과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의 창조작업은 매우 완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성서에서 신(神)이 이 세상을 만들고 기뻐했다는 사실의 기록은 인간이 자기들이 쓸 물건을 만들고 기뻐한다는 사실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신의 창조작업을 디자인(Design)으로 표현할 수 있음은 창조작업을 위한 의도와 계획이 인간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 같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908년에 간행된 희랍성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주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단순히 " God created the universe(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God modelled and fashioned the universe (신이 우주를 인간에게 맞게 최신으로 형상화하였다)" [8] 는 다소 부연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1세기 이전의 사람들의 성서적 해석이 오히려 더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훨씬 더 신을 인간과 가깝게 표현하려는 친밀성이 나타나 보인다. '신학적 현상에서' 신은 인간과 가까워지고 싶어함을 그때 사람들은 알고있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있지 않았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인간이 좋아하는 유형은 곧 신이 좋아하는 유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창조의 은총과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자신의 작업을 <인간에게 맞게 형상화하는 작업> [9] 으로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신이 우주를 디자인하든 인간이 물건을 디자인하든 디자인은 늘 <최신으로 형상화해야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또 거기에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말이다.

가. 단백질(蛋白質)과 DNA(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의 질서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질서성(秩序性)은 모든 생물의 몸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高分子 有機物)인 단백질의 구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 신의 방식은 질서(秩序/ order)가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신의 창조작업이란 질서와 다름 아니다. 생명체의 발생근원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아직도 그 진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만일 기독교사상의 창조론을 받아들임을 가정한다면 그 해답은 명쾌하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구성분자인 단백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체 발생을 진화론에 의존하더라도 단백질은 그 해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기도교적 창조사상에서 신의 질서정연한 디자인작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생명체의 수많은 아미노산(amino acid)의 연결체인 단백질은 오랜 연구결과 이 물질에 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이 밝혀졌다. 그리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DNA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아래는 단백질의 1, 2, 3차의 구조에서 정연한 질서(秩序/order)를 보여주는 예이다. [10]

A : 단백질의 1차 아미노산 배열구조 : 생명체 구성 질서의 나선형(螺旋形). 이것은 DNA의 염기배열(鹽基配列)에 의하여 규정된다.
B : 단백질의 2차 아미노산 배열구조: 일정한 각도로 구부러지고 꼬여서 특정한 나선(螺線)의 모형을 보여준다.
C : 단백질의 3차 아미노산 배열구조의 예: 공간적으로 꼬이고 구부러지고 또 접혀서 특정 입체구조(立體構造)를 가진다.
D : 단백질의 병풍구조(屛風構造) 모형의 한 예



이러한 단백질은 질서의 정연성(整然性)을 유지하면서 단백질가수분해(蛋白質加水分解), 단백질분해효소작용(蛋白質分解酵素作用), 단백질생합성(蛋白質生合成)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생명체의 창조를 되풀이해 나간다. 이것은 DNA가 갖고있는 핵산으로서, 그리고 고분자 유기화합물의 배열로서 초극의 생명현상의 한 표본이다. 이러한 초극의 생명현상에서 관찰자는 신의 생명에 대한 질서정연한 디자인의 의도가 정확하고 틀림없는 공식으로 계획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삶의 확장을 위하여 만들어 사용하게 될 물건<제품>들도 이러한 신이 내린 질서정연한 섭리(攝理)에 따라 디자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디자인은 자연질서에 어긋나게 되어 결국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물건으로 기피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디자인에서 질서(秩序)를 빼고 나면 다른 아무 것도 인간은 진행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 디자인의 요소인 조화(調和)도 각 부분들이 갖고있는 배열의 질서이고,

· 디자인의 기능주의(機能主義/ functionalism)란 것도 알고

8) Charles F. Horne, The Bible and Its Story, Vol. I , Francis R. Niglutsch, New York, 1908, P.12.

9) 여기서 최신이라 함은 아무 것이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고<眞>, 선하고<善>, 아름다운<美> 것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움의 추구를 말한다.

10) 동아출판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6, Vol.8. P.249.

보면 기능을 위해서 각 부분들이 마찰없이 배열되어지는 질서이며,

· 색(色)의 파장도 스펙트럼(spectrum)이 갖고있는 자연의 질서이며,

· 생명체는 세포배열의 질서이며, - 이 세포배열의 자연현상을 형상화하고 응용하여 인간과 환경친화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 물체는 분자구조의 질서이다. - 이 분자구조의 배열현상을 형상화하고 응용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각종 물건<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카오스(chaos)가 아니다. 질서야말로 세상 모든 사물의 존재를 지배하는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다만 질서를 이행하는 순서와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질서를 잘 갖춘 디자인을 우리가 굳 디자인(good design)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질서는 디자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역으로 그 지배의 원칙에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디자인=질서>라는 등식은 항상 가능하게 된다. 창조에 있어서 질서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확실한 선물이며, 신이 스스로의 질서정연한 디자인에 의한 창조작업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물건<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예시이기 때문에 질서는 창조주<神>와 창조자<디자이너>의 공통된 법전(法典)인 것이다. 그래서 신이 질서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듯이 인간도 물건의 제작에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디자인과정에 지켜져야 될 중요한 요건이 된다.

나. 자연물의 질서

질서에는 이러한 단백질의 고분자 유기물과 같은 최소 극단위의 구조가 갖고있는 질서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태(生態/ecology)가 갖는 질서는 사람들의 시각에 직접 반응하는 형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제품>들의 디자인에 이러한 자연물의 형상이 가진 질서가 응용되기도 한다. 자연의 형상을 주제로 한 물건의 모양은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이 없고 친밀감을 주는 질서가 있기 때문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나무의 줄기와 꽃잎의 배열, 그것들이 갖고있는 세포조직의 배열, 동물의 행태(行態)와 기관(器官)의 발달 등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질서화(秩序化) 되어져왔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는 그 동안 많은 디자이너와 디자인 이론가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들의 작업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에 좋은 디자인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디자인을 해결하는 컨셉과 기법의 하나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용하고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과 자연간의 거리감 없는 교감은 생태학적 현상 그 자체이며 인류문화사적 위업을 달성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자연관은 원시신앙에서부터 기독교의 창조신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것은 모두가 자연과 인간이 갖고있는 창조의 질서에 의존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마치 로켓이 하늘을 올라갈 때 이미 설계된 엔진의 추진력에 의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의 생명체도 그 내부에 설계된 기관(器官)의 운용장치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11] 이 말은 즉 신에 의해 미리 설계된 기관의 원활한 운동에 의해 생명체는 움직여지며 이러한 원활한 움직임은 신의 질서(秩序)있는 창조계획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생명체는 미리 설계된 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유지와 성장은 생각할 수가 없다. "동물과 물고기, 곤충과 식물, 메커니즘(mechanism)과 오거니즘(organism) 등은 상호 의존적으로 먹이사슬의 자연현상에서 디자인의 놀라운 복합성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정련된 디자인은 우리의 인체로서 그것은 신경적으로, 근육조직적으로, 순환계통적으로, 소화기계통적으로, 생리배설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진화된 재생기능을 갖고 있다" [12] 고 베블린(Bevlin)은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말은 모든 생물의 구성과 조직들은 오직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그 존재를 지탱할 수 없음을 압축하는 말이다. 자연물에서의 질서(秩序)는 최고수준의 다자인 법전(法典)임을 의미한다.

2-3. 창조의 정치경제학

창조는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봉건시대의 군주들이 신의 이름아래 왕권신수설을 수구하면서 자행해온 '창조(創造)의 오용(誤用)' 때문이다. 창조의 오용이란 무엇인가? 민중이나 장인(匠人)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창조작업을 봉건군주들이 오용했음을 말한다. 그들은 민중가운데 솜씨가 좋은 장인들을 뽑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제작 전담하는데 징발하였다. 그들은 실상은 자기고장에 남아 마을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건들을 만들어야만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장인들 모두를 다 징발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훌륭한 솜씨를 자랑하는 모든 장인들은 자기의 작품의 창조를 일반민중에게 제공해 줄 기회를 상실당한 채 오직 왕족과 귀족들의 일상생활 용품 제작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대표적 루이(Louis)왕조가 자랑하는 베르사이유(Versailles)궁전의 유물들은 모두가 호화(豪華), 장려(壯麗)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창조의 착취(搾取)'와 '창조의 오용(誤用)'이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창조작업은 침략자들에게 조공물(朝貢物)로 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엘리뜨들의 착취를 넘어서는 이중의 파괴적 제도" [13] 는 더욱 그들이 일반대중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멀어지게 하였다. 성서에서는 이미 창조의 오용에 대한 근원을 모세(Moses)집단이 이집트 저장고의 건설과 나일 삼각주에 있는 국가농장의 배수를 위해서 수행해야했던 노예노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14]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위한 '창조물'의 제작은 허용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생존을

11)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7, P.145.

12) Marjorie E. Bevlin, Design through Discovery, Holt, Rinehart & Winston, 1977, P.4.

13) Ulrich Duchrow, Alternativen zur kapitalistischen Weltwirtschaft, 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1994. / 손태규 옮김, 성서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7, P.147.

14) 출애굽기 1장 11 절

위해 기본적 필수품만을 제작했을 뿐이었으므로 거기에 뛰어난 창의적 제작물은 있을 수 없었고, 농노의 일에 쫓기어 빠른 시간에 대충 만들어 사용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더더욱 창의적 제작물은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동학란(東學亂: 1894년)도 알고 보면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불자를 찬탈하는 악정에 항거하여 일으킨 운동으로 '창조의 착취'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이는 어느 고대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창의성이 보장된 <디자인>을 찾기란 어려웠었다. 또한 국가가 전쟁에 패했을 경우에는 장인들이 애써 만들어 놓았던 창작물은 조공(朝貢)으로 강제 헌납되었고, 아예 장인들 자신들까지 전승국에 조공되기도 하였음은 모든 고대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실이다. '창조(創造)의 오용(誤用)과 왜곡(歪曲)'현상은 중세의 왕정에 이르러 노동의 착취로 더욱 극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大革命:1789-1794))은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의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전제정치(專制政治)에 맞서 싸워 이긴 혁명이었다. 사실 창조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기성찰 없이는 참다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또 대혁명이 경제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생업을 보장한 혁명이었으므로 그것은 장인들의 뛰어난 창작품(創作品)을 즐겨 사용하며 감상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창조의 오용과 왜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創造)의 회복(回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착취와 오용과 왜곡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시기가 바뀌었다고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한 현상들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옛날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조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창조의 내용은 그대로 착취와 오용과 왜곡이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 엘리뜨들이 경제 엘리뜨들과 연합하여 창조를 독점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초자유주의(超自由主義)란 미명아래 경제강대국들은 경제빈곤국들에 대해 무자비한 무역장벽 철폐의 요구와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착취와 오용과 왜곡현상을 점증시키고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특허권 등을 구실로 정보는 독점되고 그러한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신제품>은 이제 아무도 그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같이 공유(共有)할 수 없게 되었다.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권력과 지식으로 무장한 자들은 반대로 권력이 없고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은 자들 위에 언제나 지배적으로 군림해 왔으며 그것은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에 이르러서 무산자계급이나 낮은 소득의 민중에게, 또는 저개발국이나 빈곤국에게 그것은 '현대판 창조(創造)의 왜곡(歪曲)현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되었다. 다만 왜곡의 시기와 왜곡의 방법만이 바뀌었을 뿐.

3. 창조와 진리(眞理)

3-1. 창조의 정신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 나타나는 물상의 체계에 있어서 실존(實存)과 환각(幻覺)의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정신(精神)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15]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진지한 일을 하기에 앞서 "<나의 혼(魂)이 나간 다음 신(神)이 깃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편견이 없는 겸허의 정신상태만이 창조력을 지닐 수 있다." [16] 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견이 있는 훌륭한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순수하고 겸허하고 편견이 없는 정신에 의해서 만이 창조작업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의 하나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혼(魂)이 가고 신(神)이 와야만 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실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가? 혼(魂)은 어두운 인간의 영(靈)으로 동양적 음양사상에서 음(陰/Yin)을 뜻하지만, 신(神:혹은 어느 종교이든 그 신앙대상의 절대적 존재)은 절대자의 밝은 영(靈)으로 양(陽/Yang)을 뜻하기 때문이다. [17] 즉, 창조를 위하여서는 절대자가 가진 '영(靈)적 역할' - 신의 창조력- 이 절대로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신의 섭리(攝理/Providence)이며, 그 섭리에 의해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창조한 것이다. 섭리에 따르면 만족이 오고 만족은 즐거움을 준다. 신은 섭리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어놓고서 즐거워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창조의 즐거움은 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들을 섭리에 따라 만들어 놓고는 즐거워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비록 차원은 다르더라도 적어도 각각 피조된 것들에 대한 신과 인간의 감정이입(感情移入/Empathy)은 같음을 말해준다. 창조의 기쁨은 창조 주체자의 속성이다. 물론 이것은 창조론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상의 해석이다. 참고로 비교를 위하여 불교사상을 살펴보자. 신에 의한 창조는 불교사상에는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조물(被造物)의 개념도 불교에는 없다. 그러나 반야경(般若經)에서는 "공즉시색(空卽是色)" [18] 이라고 함으로서 형상<형태>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형상이란 마음의 업(業/*karma*)이 저지름에 따라 일어난 결과물이지만 역시 형상임에는 틀림없다. [19] 기독교 사상에 의해 신이 의도(意圖)하여 이 세상 존재계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건, 불교의 사상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저지른 업(業) 때문에 이 세상 존재계의 형상이 생겨났건 어쨌든 이 세상에 형상<물건의 형태>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상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결과(結果: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 창조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만 불교에서는 원인(原因: 인간이 저지른 업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인간에 의한 디자인(Design)의 '하위개념(下位概念)' [20] 을

15) Walter Gropius, Scope of Total Architecture, 최준식 역, 한국이공학회, 1979, P.34.

16) Ibid.

17) 박규현, 형태의 음·양사상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20, 1997, P.234-236.

18) 이희승, Op. cit., P.319. / 중생이나 만물이 모두 인연화합으로 말미암은 임시의 존재이기는 하나, 인연의 상속에 의하여 그대로 차별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말.

19) 불교도에게 형상이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즉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색즉시공(色卽是空)과 공즉시색(空卽是色)이 다같이 맞는 말이다.

20) 세속적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오감과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종교적 의미의 상위개념(上位槪念/신이 피조물을 창조하는 상위개념. 혹은 불교에서라면 인연의 상속으로 인하여 형상이 존재한다는 상위개념)과 비교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도와 계획으로 만물이 창조되어졌지만 불교에서는 중생이 스스로 저지른 "업(業/*Karma*:)" [21] 의 결과로 인하여 만물의 형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두 이질적 교조논리를 비교하는 것은 별 도움은 못된다. 신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창조에 대한 이론(異論)은 항상 논쟁만 가속시킬 뿐 아무른 결론에 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디자인>연구가 종교적 갈등만 제공할 뿐 생산성없는 논쟁에만 휘말리게 될 것이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본 논고는 창조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3-2. 섭리성(攝理性: Providence)

인간의 편리한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한 현대 산업디자인이 모든 과학의 내용과 특징을 포함하고있어야 한다면 과학 속에 아직 숨어 드러내지 않고 있는 진실의 틀림없음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우주과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진실된 과학자라면 우주에 만유하고 있는 신성(神性) [22] 에 대해 부정적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Einstein)이 만년에 했던 말 "나는 어떻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23] 와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만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절대로 과학자로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말은 과학자로서의 한평생 보다는 우주에 대한 종교적 진실을 이해하며 사는 삶이 훨씬 값진 것이었으리라는 생각을 담고있는 것이다. 그가 발견한 상대성원리가 평화에 쓰이지 않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킨 무기로 쓰여졌음을 비탄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큰 중요한 이유는 그가 아무리 과학에 정진하여 우주의 원리를 캐려해도 절대로 지식의 확충만을 탐내는 그런 과학자에게 창조주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응답(應答/response)'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그는 과학자보다는 오히려 종교가로 태어나서 신으로부터 직접 우주의 신비와 진실에 대해 듣고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지식(知識)을 탐하는 자보다 지혜(智慧)로운 자를 좋아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광활한 영역에서 그는 평생동안 신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주의 질서에 경외감을 가지긴 했어도 우주의 본성과 하나 되는 해탈은 얻지 못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과학자에게는 커다란 불행이었다. 과학자들은 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과 본질에 대한 신의 섭리(攝理性/ Providence)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은 과학자들에게 큰 불행이다. 왜일까? "종교는 사랑<혹은 진리>이지만 과학은 투쟁이므로", [24] 다시 말해 종교는 진리 그 자체지만 과학은 진리를 캐려는 투쟁이므로 투쟁하는 마음에 신은 찾아들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 투쟁 없이 휴식하는 마음에 저절로 찾아온다. 그것이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신의 존재방식을 체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신은 디자이너로서 인간을 만든 창조자다. 신에 의해 디자인된 우리 또한 디자이너로서 물건을 만드는 창조자이다. 왜 다 같은 창조자인가? "하느님은 그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창조적인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25] 다만 창조작업에 있어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차이만 있을 뿐 꼭 같은 디자이너이고 창조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하위개념의 디자이너는 인간을 만든 상위개념의 디자이너인 신(神)을 이해하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위개념의 디자이너는 물건을 만들지만 상위개념의 디자이너는 그 물건을 만드는 인간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디자인의 순서와 방법상 인간은 그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의 죄(罪)라고 한다면 바로 창조주의 디자인 순서와 디자인 방법을 어기고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위개념은 상위개념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이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인도하여 만들어놓은 섭리(攝理/ Providence)라는 것이다. 디자인은 이러한 섭리를 긍정함으로서 정신(精神: Spirit)적 내용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정신이 없는 디자인은 곧 죽은 디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품은 마르크스(Marx)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재료의 이동이나 화학적 변화>만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의 특별한 마음(Mind)의 목적과 그 은총에서 만들어 진 것" [26] 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마음(Mind)'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관심이 곧 섭리(攝理)의 깨달음인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의 의미에서 제품디자인이란 <신의 마음과 신에 의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의 제작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과 인간은 같은 창조자이고 같은 디자이너이다. 그 이유는 "창조주를 디자이너(Designer)이자 제작자(Maker)로 보는 견해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신체를 완벽한 기능과 미적 완성의 결정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의 합리적인 디자인(Design)과 메이컵(Make-up)의 능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 [27] 이고, 또 "인간은 하느님 자신의 창조력의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사업에 아담이 동참하도록 소명을 주셨다." [28] 는 때문이다. 호른(Horne)에 의하면 인간<아담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

물건을 만들어 쓰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의도' 라는 하위개념.

21) 중생의 마음이 빚어낸 '계획'과 '의도'에 의하여 저지르진 인과응보. 이것은 신의 '계획'과 '의도'는 아니다.

22) 혹은 우주의 본성(本性)에 대한 의식(意識/Consciousness)이라고 해도 좋다. 또는 그것의 응시(凝視/Contemplation)라고 해도 좋다. 아니면 불성(佛性)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우주의 존재계(存在界)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Paul Davies, God and the New Physics, 류시화 역, 정신세계사, 1978, P.55.

24) 오쇼 라즈니쉬, 선(禪)-영원의 웃음소리, 길연 옮김, 청하, 1985, P.81.

25) 淸海無上師,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淸海無上師 大韓民國 禪定會, 1993, P.134.

26) Roland L. Numbers, Creation by Natural Law,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1977, p.77.

27) Did Men Get Here By Evolution or By Creation? Watchtower Bible &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New York, 1967, p.116.

28) Charles F. Horne, The Bible and Its Story, Vol.1, Francis R. Niglutsch, New York, 1908, P.12.

를 할 줄 아는 천부적 디자이너로서의 기질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창조주의 작업이 다자이너의 작업과 동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법은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신은 우주를 인간에 맞게 형상화하였다(God modelled and fashioned the universe)"는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록의 의도는 신의 창조작업을 매우 인간화하면서 인간과 매우 가깝게 표현하고자 하였음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를 감히(?) 인간의 그것과 비교한데 대한 신성의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자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친근의 증표로서 오직 신과 인간과의 거리감 없는 관계에서 만이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짐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반대로 옛날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과의 교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 기뻐했듯이" -God was pleased with what he made. 창세기 1장4절-인간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것은 창조야말로 신이 하든지 인간이 하든지 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물건에 대한 창조의 섭리(攝理)인 것이다. "신의 영원한 계획(計劃)에 의하여 인도하는 질서" [29] 가 섭리라면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에 의하여 디자인되고 매이컨된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주를 이러한 섭리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섭리에 의하여 디자인되어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가 보여준 섭리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살아야함을 가르쳐 준다. 재언하지만 그것은 창조주의 디자인 방법이 곧 인간의 디자인방법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성서적 견지에서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의 섭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진화론자인 웨딩턴(Waddington)까지도 "인간의 기관이 형태(形態: form)와 패턴(pattern)으로 분명히 구성되어있다." [30] 고 함으로서 생명체의 형태와 패턴의 구성에 대한 질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 절대자가 사용한 형태와 패턴은 곧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형태와 패턴과 -질과 내용을 떠나서- 같은 형식을 갖추고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태와 패턴은 디자인 작업에서 항상 중요시된다. 디자이너는 사실 형태와 패턴을 빼고는 아무런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창조주가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든 것은 이처럼 형태와 패턴에 의한 것이며, 그것도 질서있는 형태와 패턴에 의한 것이었다. 질서있는 형태와 패턴의 변화에 따라 조화(調和)가 생겨나고, 비례(比例)가 생겨나고, 균제(均齊)가 생겨난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허락 하에 물건을 만드는 작은 창조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질서있는 형태와 패턴을 인간이 창조작업에 지키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성(聖) 오그스틴(St. Augustine)의 참회록의 일부이다.

"당신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美> 하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를 선<善>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선했습니다.
우리를 존재토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살펴보건데
우리는 창조주이신 당신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해 있고 선해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만큼의 참<眞>존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31]

오그스틴(Augustine)의 참회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다. 진(眞), 선(善), 미(美)에 대한 이 이상 더 참회의 아름다움을 찾기는 어려운 대목같다.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아름다웠고, 인간을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선하였고, 인간을 참되게 만들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참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말이 여기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참회로 옮길 때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오그스틴이 말한 신의 창조의 섭리 속에 인간도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 이와 꼭 같은 섭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한 후회와 반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쓸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쓸 물건을 아름답게<美>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쓸 물건을 굳(good/善) 디자인하기 위하여
우리도 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쓸 물건을 세상에 만들어 내놓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살펴보건 대 쓸 물건들은 지금 우리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해있고
굳 디자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건<제품>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참<眞> 존재가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오그스틴이 신에게 참회하고있는 만큼의 겸허한 마음을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면 이 세상의 물건들은 지금처럼 나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쓸 물건들을 추하게 만들었다. 죄악이란 바로 마음의 추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다음은 진(眞), 선(善), 미(美)의 창조작업을 방해하는 추한 마음이 물건을 만들면서 신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갖가지 상황이다. 이를 살펴보자.

- 물건을 정성이 없이 만드는 것,
-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재료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드는 것,
-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재료의 정량을 채우지 않고 만드는 것,

29) 이희승 편저, Op. cit., P.2034.
30) C. H. Waddington, The Nature of Life, 1962, P. 67.
31)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Translated and Annotated by J. G. Pilkington, Liveright Publishing Corp., New York, 1943, p. 277.

· 부주의하게 만드는 것,
· 남의 물건을 베끼거나 모방하여 만드는 것,
· 비싼 물건인 것처럼 번지르르하고 야하게 만드는 것,
· 환경에 위해되는 재료나 시설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
· 동물의 피를 보며 가죽이나 털, 뿔 등 자연보호에 위배되는 재료를 써서 만드는 것,
· 처음의 계약과 약속을 어기고 만드는 것,
·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
· 지나치게 비싼 제품으로 만드는 것,
· 많이 팔려고 급히 만드느라 부품을 빼고 만드는 것,
· 사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것,
· 조악(粗惡)스럽게 만드는 것,
· 제조규정과 공법에 따르지 않고 만드는 것,
·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만드는 것,
· 재료를 너무 많이 써서 만드는 것,
· 제품을 보다 인간에게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만드는 것,
· 인건비를 착취하고 노동조건을 어기면서 만드는 것,
· 고용주의 눈을 속여 고의로 시간을 허비하며 태만하게 만드는 것,
· 정직하지 않게 가짜나 유사품으로 만드는 것,
· 다른 물건과 차별화 되지 않게, 특징 없이 만드는 것,
· 상품의 표시와 내용이 다르게 만드는 것,
· 재생이 불가능한 재료를 많이 써서 만드는 것,
· 공장시설과 규모를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여 만드는 것,
· 작업팀원이 상호 협동하지 않고서 만드는 것,
· 과대 허위 광고하고 만드는 것,
· 과대 허위 포장하고 만드는 것,
·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는 곳에서 만드는 것,
· 작업시 진동, 소음, 냄새 등이 방치되어 이웃에 피해를 주며 만드는 것,
· 더러운 작업환경에서 만드는 것,
· 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
· 밀수품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
· 세금을 포탈하면서 만드는 것,
· 퇴폐, 향락, 음란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
· 기타 제조의 목적이나 법에 어긋나게 만드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죄악에 해당한다. 성서적으로 보면 "죄는 신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고 신과의 교제의 단절" 32) 인바 진, 선, 미의 완벽한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반역이고 교제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엔 오그스틴의 참회와 마찬가지로 인간<디자이너>의 참회가 있어야 한다. 신의 섭리로 볼 때 미(美)가 선(善)이면 추(醜)는 악(惡)이다. 그리고 추한 마음에서 나온 물건의 추함은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만든 사람에게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나 불행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행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 인간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와 꼭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예술이란 신의 창조에서 인간이 기쁨을 나타낸 표현" 33) 이라면 창조의 섭리를 그르치고는 인간은 단 하나의 기뻐할 만한 물건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창조와 섭리를 뒷받침하는 모든 과학의 현상은 신이 피조물에게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르침의 암시이므로 인간은 그 가르침과 암시를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과학의 빛은 인간을 위대하고 영속적인 운명의 바른 길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과학 그 자체는 신념-자연 뒤에 숨어 드러내지 않는 진실의 틀림없음에 대한 종교적 신념- 위에서 발견되고 세워지기 때문이다." 34)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는 곧 진(眞), 선(善), 미(美)의 창조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기독교 사상과 진, 선, 미는 그 기원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기 위하여 성서의 창세기는 여러 내용들을 상세하게 예시해 보이고 있다.

4. 창조의 구체적 예시(例示)

성서의 창세기(創世記/Genesis)는 신의 섭리에 따른 많은 창조의 구체적 예시를 디자인언어로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에 기술된 창조환경(創造環境), 창조대상(創造對象), 창조재료(創造材料), 기술(技術), 구조(構造), 방법(方法) 등은 그대로 제품디자인의 제작환경, 제작대상, 제작재료, 기술, 구조,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디자인 언어이다.

4-1. 창세기 1장,
- 1절~5절 -
· 창조의 원동력, 창조력 : Create, <Model and fashion>
· 땅, 부존자원으로서의 광물질 : the Earth
· 조형, 형태 : Form · 면(面) : Face
· 창조정신 : Spirit · 수자원 에너지 : Waters
· 빛, 조명 : Light · 시각(視覺) : See
· 음영, 그림자 : Shade
· 창조의 양호한 상태 : Good <Design>
· 배경과 도형(음과 양) : Negative, Positive <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
- 6절~10절 -
· 중심<중심선> ; Midst · 방향, 위치 : Under
· 명제 : Call · 장소 : Place
· 수 개념 : One · 습도, 텍스츄어 : Dry
- 11절~15절 -
· 생산 : Put forth · 사인 : Sign
· 시간 : Time <Seasons and days and years >
- 16절~25절 -
· 태양계 : The stars
· 생물 : Living creature · 종류, 종 : Kinds

32) 오태환, 宗敎와 哲學, 경성대학출판부, 1966, P.76.

33) Alf Boe, From Gothic Revival to Functional Form, Oslo University Press, Oslo, 1957, P.97.

34) Marcell Bronner and Max Bronner,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God, and Religion, Vantage Press Inc., New York, 1980, p. 240.

· 운송수단 : Winged bird
· 확대 재생산 : Be fruitful and multiply

- 26절~30절 -
· 이미지, 상(像) : Image · 유사 : Likeness
· 미(美) : Beauty · 성별 : Male and female
· 색(色) : Green

- 31절~35절 -
· 작품감상 :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 재료의 계획사업 : Schematization of his material to bring the whole work of creation

4-2. 창세기 2장
- 1절~10절 -
· 휴식, 레져 : Rested · 정원, 조경 : Garden
· 미관 : Pleasant to the sight
· 선과 악 : Good and evil<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
· 작품완성 : Finished his work

- 11절~25절 -
· 재료 : Gold, Bdellium, Onyx stone
· 선과 악의 판단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의 판단) :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 순수주의 : Naked and were not ashamed

4-3. 창세기 3장
- 1절~24절 -
· 재봉, 양재 : Sewed · 피복재료 : Fig leaves
· 의복 : Garments, Clothed · 무기 : Sword

4-4. 창세기 4장
- 1절~22절 -
· 노동, 작업 : Tilter · 문명의 개척 : Cain
· 도시건설 : Built a city · 주택 : Tents
· 제조 : Forge · 재료 : Bronze, Iron
· 악기 : Lyre and Pipe, Instruments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과 관련된 일련의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발견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자의 창조작업을 통하여 그가 <모델하고(modelled) 패션한(fashioned)> 내용의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창세기의 "창세(創世)" [35] 란 글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이므로 새로운 물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작업정신도 이와 꼭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인간의 가치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치에 올바른 형태를 제공해 주는 데미어즈(Demiurge: 플라톤 철학에서 물질계의 창조신, 최고신 다음가는 신)" [36]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인간은 숙명적으로 디지이너이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행위는 또 외계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며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인간이 이룩한 창조의 결과는 내일의 진화를 위한 기초가 되며 이것을 우리는 <창조에 기초한 발전적 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에서 진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디자인에서 진화란 마치 우리 신체의 기관이 진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애초부터 디자인은 타고난 발생학적 물질(發生學的 物質: Inherited genetic material)에 의해 성장의 과정으로서 수행되어 진다." [37] 그리고 디자인은 단지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와 이동, 그리고 그것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삭막한 무신론적 근거" [38] 에 의존하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정서, 감정, 느낌, 정신이 작용한 결과물인 것이다. " 신은 인간에게 세상을 공유하도록 내려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인간의 삶과 편의를 위해 이용하느냐에 대한 이유도 가르쳐 주셨다.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이 내려주신 것이다." [39] 그래서 문화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몽해 나가는 것도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의 영위를 허락하는 신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된다. 디자인 이론가 최대석은 까닭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초의 영원한 디자이너 하느님" [40] 이라고 함은 바로 디자인에 대한 신의 섭리성을 말하려 했음일 것이다.

5. 결론

하나의 논리란 항상 변증법적 반론을 갖기 마련이다. 특히 개인에 따라 주관적 신조와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종교와 신학과 관련된 이론이란 이해를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심한 도그마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고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기독교적 창조사상에 국한된 논리로서 종교의 일 부분적 견해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기도교적 사상에서 분명히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관리할 능력을 부여받았고 여전히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피조세계 내에 정해놓은 일정한 한계(限界)와 틀<型> 속에서 살아간다." [41] 그리고 그러한 한계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본능(本能)이라 부르며 또 그것을 디자인의 숙명(宿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은 창조주에 의한 '의도적 설계(意圖的 設計)'의 흔적" [42] 임으로 인간은 디자이너

35) Charles F. Horne, op. cit., P.13. / 성서의 Hebrew 번역에는 신의 창조 작업을 "God created ~"로 시작하지 않고, 시적, 예술적 표현인 "God Modelled~", 혹은 "God Fashioned~"으로 시작함으로서 창조주를 극치의 디자이너로 표현하고 있다.

36) Design Issues, Vol.2, No.1, The School of Art and Design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Spring, 1985, p. 53.

37) Phillip Steadman, The Evolution of Design: Biological Analogy in Architecture and the Applied Ar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 151.

38) 박규현, 제품디자인의 만족요인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5, P.37.

39) Albert R. Chandler, The Clash of Political Ideals, Appleton Century-Crofts, Inc., New York, 1949, p. 25.

40) 최대석, 산업디자인학, 홍익대학교 출판부, 1995, P.v.

41) 양승훈, op. cit., P.47.

42) Nico Tinbergen, and the Editors of Time-Life Books, Animal Behavior in Life, Nature Library, New York, PP.106-107.

로서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을 '의도적(意圖的)'으로 '설계(設計)'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어두운 공간에 발사된 초음파의 반향을 감지함으로서 튜브로 복잡하게 꽉 찬 공간을 몇 시간이나 충돌 없이 비행한 박쥐의 실험은 창조주의 정확한 '의도적 설계'를 보여주는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훌륭한 디자인이란 바로 '의도적 설계'가 얼마만큼 질서(秩序)있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된다. 창조의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 창조주가 그의 섭리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듯이 인간도 창조주가 내려 준 섭리를 따라 그것을 본능으로 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여기서 섭리(攝理/Providence)라 함은 '신의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인도되는 질서'이다.

· 기독교사상에서 볼 때 형상<형태>은 절대자의 말씀에 따른 창조의 '결과(結果)'이고 디자인은 그 결과물의 미리 계획된 의도이며 질서이다. 43)

· 절대자는 상위개념의 창조자이며 디자이너이고 인간은 하위개념의 창조자이며 디자이너이다. 하위개념의 디자이너는 물건을 만들지만 상위개념의 디자이너는 그 물건을 만드는 인간을 디자인하였으므로 디자인의 순서와 방법상 인간은 절대자가 정한 창조규칙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영역에서 말하는 죄(罪)란 바로 창조주의 디자인 순서와 디자인 방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 종교적 의미의 디자인의 정의는 '신의 마음(Mind)과 신이 만든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의 제작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의 허락 하에 물건을 만드는 작은 창조주이다.

· 인간은 물건을 아름답게<美> 만들기 위하여 이미 아름다워져 있어야 하고, 물건을 선<善/ Good>하기 위하여 이미 선해져 있어야 하고, 물건을 참<眞>되게 만들기 위하여 이미 참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와 꼭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 신의 창조와 섭리를 뒷받침하는 모든 과학의 현상은 신이 피조물에게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르침의 암시이며 원리이다.

· 인간이 디자인을 통해 물건을 만듦으로서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몽해 나가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영적 확장을 이루기 위함이다.

· 인간이 물건을 만듦으로서 이룩한 창조의 결과는 내일의 진화를 위한 또 다른 디자인의 기초가 됨으로서 창조는 끊임없이 연속되고 순환되며 이어진다. 끝.

참고문헌

· 김두재 역, 능엄경, 민족사, 1998.
· 동아출판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6.
· 박규현, 제품디자인의 만족요인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5.
· 박규현, 형태의 음·양사상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20, 1997.
· 박영학,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박영률출판사, 1998.
· 손민규, 깨달음의 향기, 불지사, 1993.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1997.
· 오태환, 宗敎와 哲學, 경성대학출판부, 1966.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4.
· 최대석, 산업디자인학, 홍익대학교 출판부, 1995.
·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와 과학,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淸海無上師,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淸海無上師 大韓民國 禪定會, 1993.
· American Bible Society, Good News Bible, New York, 1976.
· Augustine, St., The Confessions (Translated and Annotated by J .G .Pilkington), Liveright Publishing Corp., New York, 1943.
· Belvin, Marjorie E. Design through Discovery, Holt, Rinehart & Winston, 1977.
· Boe, Alf. From Gothic Revival to Functional Form, Oslo University Press, Oslo, 1957.
· Bronner, Marcella and Bronner, Max.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God, and Religion, Vantage Press Inc., New York, 1980.
· Chandler, Albert R. The Clash of Political Ideals, Appleton Century-Crofts, Inc., New York, 1949.
· Davies, Paul. God and the New Physics, 류시화 역, 정신세계사, 1978.
· Design Issues, Vol.2, No.1, The School of Art and Design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Spring, 1985.
· Did Men Get Here By Evolution or By Creation? Watchtower Bible &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New York, 1967.
· Duchrow, Ulrich. Alterativen zur kapitalistischen Weltirtschaft, 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1994.
· Gropius, Walter. Scope of Total Architecture, 최준식 역, 한국이공학회, 1979.
· Horne, Charles F. The Bible and Its Story, Vol.1, Francis R. Niglutsch, New York, 1908.
· Numbers, Roland L. Creation by Natural Law,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1977.
· Polkinghorne, J. Belief in God in an Age of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1998.
· Rajneesh, Osho. 선(禪)-영원의 웃음소리, 길연 옮김, 청하, 1985.
· _____, 나를 따르라, 류시화 역, 청하, 1987.
· Steadman, Phillip. The Evolution of Design: Biological Analogy in Architecture and the Applied Ar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1.
· Tinbergen, Nico and the Editors of Time-Life Books, Animal Behavior in Life, Nature Library, New York.
· Waddington, C. H. The Nature of Life, 1962.

43) 참고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형상을 인간이 저지른 업의 '원인(原因)'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도와 계획으로 형상이 이루어지지만 불교에서는 중생이 스스로 저지른 업(業/Karma)으로 인하여 형상이 생겨난다.